

'10-10-10' 백년가약

한인 예비부부 토론토스타 소개

2010년 10월10일 결혼하는 토론토 거주 한인 에스더 장(30)과 마이클 김(32)씨 커플이 6일자 토론토스타에 소개됐다.

가족과 친지들을 초청한 '정식결혼식'은 내년 1월10일 멕시코에서 올릴 계획이지만, 두 사람은 한 세기에 한 번 돌아오는 '10-10-10'의 완벽한 날짜를 놓칠 수 없었다. 이들은 10일 토론토시청에서 법적으로 백년가약을 맺는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혼인신고를 하고, 내년에 정식으로 결혼할 생각으로 이같은 계획을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장씨는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김씨는 "어차피 서류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중에 이같이 특이한 날에 결혼한 사실을 되새길 때마다 흥미로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들 커플뿐만 아니라, 토론토시는 10월10일 결혼하기 원하는 커플들의 문의가 쇄

도함에 따라 시청 옆 호텔의 공간을 빌렸다. 10일은 일요일이라 시청은 원래 문을 열지 않는다. 시청은 6일 오전 현재까지 커플 19쌍으로부터 예약을 받은 상태다. 이동통신업체 텔러스(Telus)



▲ 2010년 10월10일 결혼하는 마이클 김씨와 에스더 장씨. 토론토스타 사진

에서 분석가로 근무하는 김씨는 인터넷학원 '클릭(Click Education Centre)'의 원장인 장씨와 데이팅사이트 '이하머니(eHamony)'에서 만났다. 서로 한인임을 확인한 이들은 처음 만났을 때 다소 어색했으나 세 번째 데이트 때부터 전생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사건지 10개월 만에 김씨가 청혼했다.

결혼기념일을 10월10일과 1월10일 가운데 어느 쪽으로 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장씨는 "둘 다"라며 웃었다.

이민가정 자녀들 "더 열심히 공부"

토박이보다 이민가정의 자녀들이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5일 발표됐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카리브해·남미 출신 이민가정 자녀들이 학교를 중도포기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사실도 아울러 지적했다. 반면 졸업률이 가장 높은 학생들은 중국계로 드러났다.

온타리오정부 자문기관인 '온타리오교육품질평가위원회(Higher Education Quality

Council of Ontario)'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학생들 간의 인종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소수민족 출신 교사들을 고용하고, 원하는 학생들의 기술분야 진출을 격려하고, 이민자 자녀들이 캐나다 교육제도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인(settlement worker)을 더 늘릴 것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보고서 공동저자 중 한 사람인 레이크헤드대의 로버트 스위트 교수는 "많은 이민자 가정들이 정착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녀들은 성공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 때문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종적으로 볼 때 백인학생의 31%, 흑인학생은 28%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계 학생은 57%가 대학에 입학한다.

한편 토론토공립교육청(TDSB)의 경우 카리브해 출신 이민자 자녀들 중 40%가 고교를 중간에 포기하며 12%만이 대학이나 전문대로 진학한다. 이밖에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 자녀들은 토박이들보다 고교를 졸업할 확률이 25배나 더 높으며 대학·전문대에 진학할 확률도 39% 높다.



▲ 다큐 '리얼매쉬'의 한 장면.

이민속감독 다큐 '리얼매쉬' 11·12일 히스토리채널

박두운기자 dwayne@koreatimes.net

한인 영화감독 이민속씨의 새 작품이 히스토리 채널 전

파를 탄다. 이 감독의 신작 '리얼매쉬(The Real Mash)'는 지난 72-83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TV쇼인 '매쉬'의 연기자들을

인터뷰하고 작품 속의 등장인물을 직접 만나 다큐멘터리로 엮은 것. 방영시간은 11일(월) 오후 9시, 12일(화) 오후 8시에는 재방영된다.

한국전을 배경으로 한 매쉬는 원래 리처드 후커가 쓴 소설로, 70년 영화로 제작됐다. 이 감독은 TV시리즈 매쉬에서 한국인들이 참전, 여쩔 수 없는 희생자, 심술궂은 범죄자 등으로 그려진 것과 관련, 공동제작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 "그저 재미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죄책감을 느끼다"는 답을 얻어냈다.

사회정의의 주체로 다큐를 제작하는 이 감독은 노동착취를 소재로 한 다큐 '엘 콘트라토(EI Contrato·계약)'로 지난 2005년 캐나다 영화·방송상인 제미니상 후보로 지명된 바 있다. 남북분단의 비극과 이산가족의 슬픔을 그린 '호랑이정신(Tiger Spirit)'으로 제 24회 제미니 최우수 다큐상을 수상했다.

日중앙은행 전격 금리인하

"각국 中銀 뒤따를 것"

'양적완화' 불가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지난 5일 전격적으로 '제로금리'로 복귀하고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세계 중앙은행들도 곧 일본을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기회복세 둔화가 일본만 겪고 있는 현상이 아닌 것임을 고려할 때 비슷한 상황에서 있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도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 "예상치 못한 일본은행의 결정은 경기부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세계 주요 중앙은행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행동"이라며 이와 비슷한 주요 중앙

은행들의 행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0.1%에서 0~0.1%로 낮추고 국제 매입과 상장투자신탁(ETF) 등을 매입하기 위해 5조 엔 규모의 펀드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은행에 이어 양적완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큰 중앙은행으로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꼽히고 있다.

FRB는 경기부양과 10%에 근접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빠르면 오는 11월 정례모임에서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OE는 7일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다이와 생명연구소의 노구치 마이코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의 뒤를 이을 중앙은행은 FRB일 것"이라며 "FRB가 (경기부양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양적완화와 정책 외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지 않는 대신 금리를 동결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호주. 호주 중앙은행(RBA)은 최근 예상외로 4.5%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마크 카니 총재도 지난달 30일 "예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리태금리동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영국 재계 지도자들의 모임인 '인스티튜트 오브 디렉터스'의 그라미 리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것은 경기회복세 둔화"라고 주장했다.

임장: 김용순
심전신열요법
만병의 근원을 치료하니 만병통치라고 합니다!
치료가 가능한 질환
수족냉증, 지혈, 두통, 만성피로, 천식, 아토피, 중풍, 협심증, 저혈압, 고혈압, 허리, 어깨 통증, 요추근, 생리통, 치질, 전립선 비대증, 비염, 위염, 관절염, 우울증, 정신질환, 자폐증
신전신열 요법 캐나다 연구원
SHIMDEON SHIN, MD, FRCPC, FRCPC(CANADA)
124 Kendal Ave. Toronto
Tel: 416-220-0330 / 992-6506

공인회계사 공인재무분석사
민병규
(Brian) MIT석사 (MSc, CGA, CPA, CFA)
· 세무/회계 업무
· 세무감사
· 변호/회소
· 창업 및 인수 상담
1210 Sheppard Av. E. #308 (Leslie & Sheppard) 416-492-7848

한수지 모기지
416. 602. 0114

COMPLETE visioncare
베이뷰 빌리지 쇼핑몰 내 Complete Vision Care
15년 오랜 경험
검안의
Optometrist
Dr. Lucia Kim
B.Sc., O.D.
· 편리한 방문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콘택트렌즈 취급
2901 Bayview Ave. Sheppard (CIBC Bank 지점) 416.226.LENS (5367)

옥든장 의사
- 매장, 화장, 묘지구입, 비석구입, 이장
- 장례보험과 장례비용
- 품위있는 장례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 전문 장례인력의 24시간 서비스
- 친환경 장례와 수목장
니형주 (L.J. Na)
Appt. Funeral Director
416-659-0563(C)
Scarborough Tel: 416-293-5211
4164 Sheppard Ave. E. (East of Kennedy Rd.)
www.ogdenfuneralhome.com

有備無患 Jerrett 제레트 장 의 업 체
PAUL KIM 김형정 Funeral Director C(416)568-4866
· 사전 계획을 하시든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장례적금/장례보험)
· 불기질 관련에 의해 관리한 선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인에게 KOREA SPECIAL PLAN을 준비했습니다.
· 노스욕 / 손힐 / 리치몬드힐 / 이토비크 / 미시사가 어느 장례식장에서든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례/묘지/비석 일체
Cell(휴대폰): (416)568-4866
노스욕 사무실: (416)223-6050
6191 Yonge St. North York (Steeles 바로 남쪽)

집단장은 집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CROWN WINDOWS AND DOORS
★ 창문과 모든문 ★
★ 덧문, 담과 울타리 ★
★ 차고, 주차장문 ★
회사부담 HST
NEAT® Glass or "Low-E"
태양의 자외선과 적외선을 반사하여 유리위에 열을 막아줍니다.
■ 정부 에너지 보조금 \$5,000
■ 최고 품질의 Unplasticized PVC
■ 'Sure Stop' 40 등급 안전, 보안시스템
■ 양도 가능한 평생 워런티 (Non-Pro-Rated)
■ Cardinal I.G. 특별 브랜드 Low-E 코팅 & 95% 아르곤가스
■ 자금융자 가능
We Specialize in
모든 종류의 Windows
- Casement & Awning
- Double & Single Slider
- Pictures & fixed Casements
- Bay, Bow & Custom Shape
- Commercial Windows
모든 종류의 Doors
- Patio Door
- Garden Door
- Entrance Door
- Storm Door
- Porch Enclosure
- Commercial Door
- Garage Door
With Low-E* & 아르곤 가스
LIFETIME WARRANTY
3261 Kennedy Road, Unit 1, Scarborough, ON M1V 2J9 (Kennedy/Passmore)
Mon-Fri 11:00am-6:30pm Sat 11:00am-6:00pm Sun 12:00noon-5:00pm
www.crownwindows.ca
무료견적 647.200.1000
전문가상담 416.298.9898
미시사가문의전화 647.500.0900

WINDOWS TO GO
WINDOWS & DOORS
최고의 품질과 시공을 자랑하는 창호시스템
무료 견적!
Low-E Glass 무료
Argon Gas 무료
Lifetime Warranty
Manufacturer Direct Sale!
캐나다 및 미국 창호 품질규격 인증
Tel: 905-944-1919
Fax: 905-943-9111
Toll: 1-888-567-7575
www.windowstogo.com
Show Room: 81 Telson Rd. Markham, Ont. L3R 1E4